

# 高麗 및 朝鮮王朝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安 輝 濬\*\*

## 目 次

1. 序 言
2. 高麗時代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3. 朝鮮王朝時代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 가. 朝鮮王朝時代의 文人契會
  - 나. 朝鮮王朝時代 契會圖의 變遷
4. 結 語

## 1. 序 言

주로 風流를 즐기고 親睦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던 文人들의 契會는 韓國의 경우 이미 高麗時代에 시작되어 朝鮮王朝時代에 큰 流行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文人契會는 相夫相助를 主目的으로 하는 庶民들의 契나 金錢的 利益을 추구하는 現代女人들의 契와는 큰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朝鮮王朝時代의 契會는 官衙의 同僚나 科擧의 同年 또는 그밖의 친구들끼리 봄이나 가을의 화창한 날을 받아 산이나 강가에서 모이는 것이 常例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屋內에서 모이기도 하였다. 벼슬을 산 선비들의 경우엔 官衙를 옮길 때마다 그 官衙의 契會에 참석하는 게 常例였기 때문에 一生을 통하여 수십차례 契會를 갖게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朝鮮王朝時代의 契會는 당시의 文人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시대의 이러한 契會들은 일종의 記念物로 기록하고 傳承시키기 위해 그림으로 圖示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參加者 수만큼 製作하여 나누어 갖고 各者의 家門에 代代孫孫 물려가며 보관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契會圖는 대부분의 경우 契會場面の 圖示는 물론 그 名稱을 적은 標題, 그리고 參席者들의 여러 가지 人的事項을 적은 座目を 지니고 있어서 製作年代를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年記를 지닌 作品史料가 드문 韓國繪畫史의 연구에 크게 도움을 준다. 대체로 조선왕조초기에는 上段에 篆書體로 契會의 名稱을 적고, 中段의 넓은 畫面에 山水를 背景으로 契會의 場面을 圖示하며, 下段에는 參席者들의 姓名, 生年, 登第年, 位階, 官職名등을 적은 座目を 마련하는 식의 매우 독특한 이른바 “契軸”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契軸의 형식은 中國이나 日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朝鮮王朝

\* 本稿는 韓國文化人類學會 第110次 月例發表會에서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라는 題下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충하여 정리한 것이다. 本稿의 「古文化」 掲載을 快諾하여 주신 韓相福博士께 謝意를 표한다.

\*\* 弘益大學校 美術大學教授·同大學博物館長

특유의 韓國的 考案으로서 記錄을 요하는 其他의 宮闕의 행사를 圖示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를 거쳐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 契軸은, 보다 편리하게 펴볼 수 있고 記錄이 용이하며 보관이 손쉬운 “契帖”으로 점차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한국의 文人契會와 그것을 畫幅에 담아 기록한 契會圖는 옛날 한국 文人들의 生活을 이해하는 데에는 물론, 韓國繪畫史의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契會圖는 당시 生活文化의 여러 단면들을 圖示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風俗畫의인 경향도 길게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高麗時代 및 朝鮮王朝時代의 契會와 契會圖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크다. 단 契會의 社會人類學的 側面에 관해서는 筆者가 다룰 能力이 없으므로 이곳에서는 論外로 할 수밖에 없으며, 또 契會圖에 관한 설명도 이미 發表된 것의 경우 인용만으로 간단하게 다룰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 2. 高麗時代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高麗時代와 朝鮮王朝時代 文人들의 契會는 70歲以上の 德望이 높고 二品以上の 官職을 지냈던 元老文士들로 구성이 되는 耆老會 또는 耆英會와, 同僚나 同年끼리 조직된 一般 文人契會의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一般 文人契會는 또한 契員들의 所屬 官衙나 官階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붙여지곤 하였다. 元老文人만으로 구성되는 극도로 폐쇄적인 耆老會나 耆英會와는 달리 一般 文人契會는 同僚나 同年 또는 친구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加入條件이 아무래도 약간은 나은 편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두 종류의 文人契會는 이미 高麗時代에 流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먼저 耆老會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高麗時代에 조직된 최초의 耆老會는 太尉 崔謙(1135~1211)의 海東耆老會이다. 즉 崔謙은 70才되기 전에 官職을 乞退하고 崇文館의 남쪽 斷峰 위에 있는 한구루의 잘 생긴 나무를 사랑하여 그 옆에 집(雙明齋)을 짓고 年高하고 德邵한 당시의 士大夫 8人과 그 속에서 琴·碁·詩·酒로 自娛하였던 것이다.<sup>1)</sup>

崔謙과 그의 동생 崔誥이 그밖의 士大夫 7人과 함께 조직하였던 海東耆老會는 中國 唐代 白樂天의 洛中九老會와 北宋代 文彥博의 眞率會를 본받은 것으로 神宗 6年 癸亥(1203)부터 모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날마다 詩나 酒 혹은 琴과 碁로 相娛 自逸하였던 것인데 이때의 모임은 뒤에 보듯이 李佺의 「海東耆老圖」에 그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海東耆老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다.<sup>2)</sup>

- 1) 『東文選』 卷65의 「雙明齋記」(16b~18b)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今太尉昌原公(崔謙) 歷任四朝 夷險一節 及登庸於黃閣 薦進賢 能鎮安宗社 年未七十 上章乞退 獲遂懸車之禮 襄於崇文館之南 斷峰之頂 愛一佳樹 作堂其側 與當世士大夫 年高而德邵者八人 遊息於其中 日以琴詩酒爲娛 凡要約一依溫公眞率會古事……爰命書工製爲海東耆老圖 刻石以傳於世……”
- 2) 崔瀧의 『拙稿千百』 卷 1 (1b~5a)과 『東文選』 卷84 (19b~22a)에 실려 있는 「海東後耆老會序」를 보면 崔謙의 海東耆老會의 構成 經緯와 그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唐會昌(841~846)中 白樂天既以太子少傅致仕 居洛 與賢而壽者六人 同議履道里宅爲尙齒之會……樂天爲詩紀之 後世傳爲洛中九老會 至宋元豐(1078~1085)中 文潞公守洛 亦與耆英 約爲眞率會……神王戊午(1198) 崔靖安公始解珪 組開雙明齋於靈昌里中 癸亥(1203) 集士大夫老而自逸者 日以詩酒琴碁相娛 好事者傳畫爲海東耆老會圖 趙通亦樂誌之 及丙寅

- ① 大僕卿寶文閣直學士致仕 張自牧(78歲)
- ② 太尉平章集賢殿大學士致仕 崔謙(77歲)
- ③ 司空左僕射致仕 李俊昌(77才)
- ④ 判秘書翰林學士致仕 白光臣(74才)
- ⑤ 禮賓卿春宮侍讀學士致仕 高瑩中(74才)
- ⑥ 司空左僕射寶文閣學士致仕 李世長(71才)
- ⑦ 戶部尙書致仕 玄德秀(71才)
- ⑧ 太師平章修文殿大學士致仕 崔誥(69才)
- ⑨ 軍器監 趙通(64才)

이名單에서 보듯이 崔誥과 趙通을 제외하면 모두 70才이상의 元老 士大夫들이며 이들의 序列은 官階보다 年齡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다. 또 趙通 한사람 이외에는 全員 官職을 물러난 致仕大臣 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海東耆老會의 會員은 원칙적으로 宰相級이상의 高位官職을 지낸 70才以上の 인물이어야만 했던 것임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이들은 『高麗史』의 記錄에 의하면 逍遙自適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地上仙이라고 불렀다고 한다.<sup>3)</sup>

崔謙을 중심으로 한 海東耆老會에 관하여 조선초기의 權近(1352~1409)은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그의 「後耆英會序」에 의하면 崔謙은 高麗의 盛時에 士大夫 老人들과 더불어 海東耆英之會를 시작하였는데 每月 逐旬마다 한번씩 모여 오로지 술과 詩로서 自娛할뿐 어질고 안하고 등의 身邊의 長短點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며, 뒤에 朝鮮初期 權僖의 耆英會에서 살펴 보듯이 꽤 구체적인 회칙을 지니고 있었던 모양이다. 權近은 이어서 崔謙이후에도 耆老會가 계속되었으나 부처를 섬기는 모임으로 바뀌어 老人들로 하여금 자주 성가시게 쫓아려 절하게 함으로써 君子의 知命不惑함과 優遊自樂할 뜻을 잃게 하였다고 개탄하였다.<sup>4)</sup>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崔謙의 海東耆老會는 열흘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였으며 風流만을 즐기는 순수한 親睦契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權近의 「後耆英會序」에서는 耆老會와 耆英會가 아직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뒤에 살펴 보듯이 15世紀後半頃부터는 「耆老會」와 「耆

(1206) 靖安公之弟文懿公 年俯七旬 上章納政 亦豫斯會 則添入其像于圖中 朴少卿仁碩誌之 大僕卿寶文閣直學士致仕 張自牧其一也 年七十八 太尉平章集賢殿大學士致仕 崔謙其二也 年七十七 司空左僕射致仕 李俊昌其三也 與太尉同年 判秘書翰林學士致仕 白光臣其四也 年七十四 禮賓卿春宮侍讀學士致仕 高瑩中其五也 與白同年 司空左僕射寶文閣學士致仕 李世長其六也 年七十一 戶部尙書致仕 玄德秀其七也 與司空同年 太師平章修文殿大學士致仕 崔誥其八也 年六十九 軍器監 趙通其九也 年六十四 通共九人.”

3) 『高麗史』 卷99, 列傳卷12 (3b~4a)에 “(崔)謙聰……上章乞退 遂致仕閑居 編其齋曰雙明 與弟守太傅誥 及太僕卿致仕張自牧……國子監大司成致仕趙通等爲耆老會 逍遙自適 時人謂之地上仙 圖形刻石傳于世 熙宗七年卒 年七十七 諡靖安…….”

4) 權近, 『陽村集』 卷19, 「後耆英會序」(12a~13b)에 “耆英有會尙矣 唐之白樂天 宋之文潞公 俱有洛中之會 當時稱美 作圖以傳之 吾東方 在前朝盛時 太尉崔公謙 號雙明齋 與其士大夫之老 而自逸者七人 慕二公之事 始爲海東耆英之會 約每月逐旬一集 惟以觴詠自娛 語不及戚否得失 厥後踵而繼之者 爲佞佛之席 至使老者僕僕而亟拜 殊失君子知命不惑 優遊自樂之意矣”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耆老會의 성격이 고려후기에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性格의 변화는 뒤에 살펴 볼 庚資諫이나 蔡洪哲의 耆老會에서도 엿볼 수 있다.

英會」의 의미가 약간씩 달라진 듯하다.

崔謙의 海東耆老會가 그림으로 남겨졌음은 몇가지 記錄들에서 확인이 된다. 『東文選』所載의 「海東後耆老會序」에 의하면 好事者가 「海東耆老會圖」를 그렸고 契員중의 한 사람인 趙通이 이를 기꺼이 기록하였으며 丙寅年(1206)에 崔誥이 七旬을 바라볼 즈음 관직을 사퇴하고 耆老會에 들어갈 때에는 그의 像을 그림중에 추가로 그려넣고 朴仁頤이 이를 기록하였다고 한다<sup>5)</sup>. 이 기록으로 보면 崔謙의 海東耆老會가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틀림 없다고 하겠다. 또한 契員이 새로 가입할 때에는 본래의 그림에 그때마다 그의 像을 추가로 그려넣고 기록을 가하였음도 알 수 있다.

이때의 「海東耆老圖」는 비단이나 종이에만 그려진 것이 아니고 보다 항구적인 傳承과 保全을 위해 돌에 새기기도 하였던 모양이다. 이점은 『高麗史』의 崔謙에 관한 기록 중에 그의 耆老會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圖形을 돌에 새겨 世上에 전했다”는 구절이 보이는 점이나 『東文選』의 「雙明齋記」에 “畫工에게 命하여 「海東耆老圖」를 제작하게 하고 돌에 새겨 세상에 전했다”는 記錄이 남아 있는 사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sup>6)</sup> 이처럼 崔謙과 그의 친구들은 당시의 모임을 소중하게 記念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때의 結契가 후대의 士大夫老人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리라는 점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崔謙의 海東耆老會를 그린 畫家와 그 대강의 내용은 海東耆老會의 老人들과 가까웠던 眉叟 李仁老(1152~1220)에 의해 밝혀진다.<sup>7)</sup> 즉 李仁老는 그의 「題李侗海東耆老圖像」이라는 글에서 詩畫一律과 杜子美의 飲中八仙歌에 대하여 언급한 후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海東耆老圖」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8)</sup>

지금 李侗이 그린 「海東耆老圖」를 보니 야윈 얼굴 흰 머리칼, 홀가분한 옷차림, 가야금 들고 바둑두며 시 짓고 술시며, 하품하고 기지개 켜며 자유롭게 쉬는 모습등 그 妙함을 얻지 않은 곳이 없다. 비록 標誌를 보지 않고도 누구인지를 알겠으니 이름을 영원히 전하기에 족하겠다. 하물며 太尉公(崔謙)이 시를 지어 그 光價를 더함에라! 李侗은 崇班인 存夫의 아들인데 그림으로 海東에 이름이 나 있다고 한다. 삼가 跋文을 적는다.

이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崔謙의 海東耆老會를 그린 사람은 崇班 李存夫의 아들인 李侗이었다는 점, 둘째 이 모임의 참석자들의 像은 朝鮮王朝時代의 肖像畫처럼 어떤 형식을 갖추어 그려졌기 보다는 음악과 바둑 그리고 詩와 술을 즐기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점, 셋째 그러나 이들의 像은 개개인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정확하게 그려졌으리라는 점. 넷째 各人의 像 옆에는 標誌가 적혀 있었고 또한 詩文이 곁들여져 있

5) 註2 參照.

6) 註3과 註1의 끝부분 參照.

7) 李仁老가 崔謙을 위시한 老人들과 가까웠다는 사실은 『東文選』 卷84의 「海東耆老會序」에 실려 있는 “……時李眉叟翰林 依盧秋司馬故事 嘗從容諸老間 著詩文百餘首 形容一會勝事詳矣 有雙明齋集傳于士林……”이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8) 『東文選』 卷102, 「題李侗海東耆老圖後」(1a~1b). “詩與畫 妙處相資 號爲一律 古之人以畫爲無聲詩 以詩爲有韻畫 蓋模寫物象 披割天慳 其術固不期 而相同也 僕嘗讀杜子美飲中八仙歌……今見李侗所畫海東耆老圖 蒼顏華髮 輕裘緩帶 琴瑟詩酒 欠伸偃仰之態 無不得其妙者 雖不見標誌 可知其人 則足以垂名於不朽矣 况乎 太尉公作詩 以增益其光價歟 李侗崇班存夫之子 世以畫名海東云 謹跋.”

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본다면 「海東耆老圖」는 조선왕조시대의 전형적인 契會圖와는 차이가 컸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생각을 좀 비약시킨다면 여러명의 老人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軸이나 帖보다는 옆으로 길게 펴볼 수 있는 手卷에 그려지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러나 人物들의 배경에 山水를 그려넣었는지의 여부는 전혀 짐작할 수 없다. 中國의 「西苑雅集圖」와 비슷한 形式을 지니지 않았을까 추측될 뿐이다. 여하튼 이 「海東耆老會圖」가 조선초기의 전형적인 契會圖들과 형식적인 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런데 이 「海東耆老圖」를 그린 李佺은 崇班인 李存夫의 아들이므로 그림을 잘 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뿐 그의 生涯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雙明齋記」의 「畫工에 命하여 「海東耆老圖」를 제작케 했다」는 귀절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李佺은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畫員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제까지 살펴본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려시대 최초의 耆老會인 崔謙의 海東耆老會도 中國 唐代的 洛陽九老會나 宋代的 眞率會의 예에 따라 모여졌고 또 그러한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圖繪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의 「海東耆老圖」가 중국의 契會圖들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물론 확실히 알길이 없다.

崔謙이 시작한 耆老會의 전통이 후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계승되었음은 庾資諒(1150~1229)과 蔡洪哲(1262~1340)의 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庾資諒은 官職을 앞당겨 乞退하고 致仕한 宰相들과 耆老會를 만들어 부처님 섬기기를 돈독히 하였다고 한다.<sup>9)</sup> 蔡洪哲 역시 佛敎를 몹시 좋아하였고 權溥 이하 國老 8인과 耆英會를 조직했다고 전해진다.<sup>10)</sup> 庾資諒이나 蔡洪哲의 耆老會는 순수한 風流와 親睦에 목적을 두었던 崔謙의 그것과는 달리 事佛에 치중했던 것이 큰 차이라 하겠다. 앞서 보았듯이 權近이 「後耆英會序」에서 耆老會가 부처를 섬기는 자리가 되어 노인들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君子의 知命不惑함과 優遊自樂之意를 잃게 하였다고 개탄한 것은 바로 庾資諒이나 蔡洪哲등의 耆老會를 두고 한말로 생각된다. 아뵘은 이처럼 耆老會가 고려후기에 이르러서는 종교적인 목적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耆老會들도 그림으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高麗時代에는 士大夫老人들의 폐쇄적인 耆老會와 더불어 一般 文人契會도 유행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庾資諒(1150~1229)이 少時적에 조직했던 契에 대한 기록이 『高麗史』에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는 16歲에 儒家子弟들과 契를 조직하고 衆人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武人인 吳老陟과 文章弼을 끌어넣어 鄭仲夫의 亂때 禍를 면했다고 한다.<sup>11)</sup> 이 기

9) 『高麗史』卷99, 列傳 卷12의 庾資諒에 관한 記錄 중에 “高宗時累拜尙書左僕射 引年乞退 與致仕宰相 爲耆老會 事佛甚篤 十六年 卒年八十”이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어 부처를 섬기기 위한 耆老會의 면모를 짐작해볼 수 있다.

10) 『高麗史』卷108, 列傳 卷21, 蔡洪哲條에 “蔡洪哲 字無悶 平康縣人 忠烈朝登第……尤好釋敎 嘗於北 構榭檀園 常養禪僧又施藥 國人多賴之 呼爲活人堂 忠宣嘗幸其園……時邀永嘉君權溥以下國老八人 爲耆英會……”라는 기록이 보인다.

11) 『高麗史』卷99, 列傳 卷12, “(庾)資諒 字湛然 應圭之弟也 莊重寡言 毅宗朝大臣大盛 資諒年十六 與儒家子弟 約爲契 欲併引武人吳光陟·文章弼 衆皆不肯 資諒曰 交遊中文武俱備可矣 若拒之 後必有悔 衆從之

록으로 보면 12세기 중엽에는 10代の 少年들도 契를 조직할 정도로 文人契가 유행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단편적인 기록들로만 미루어보아도 고려시대에는 老人士大夫들의 耆老會와 一般 文人契會가 함께 성행하였고 또 종종 그림으로 圖繪되기도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초기로 그 전통이 계승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 3. 朝鮮王朝時代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 가. 朝鮮王朝時代의 文人契會

高麗時代에 傳統이 형성된 耆老會와 一般 文人契會는 朝鮮王朝時代에 들어서 더욱 활발한 樣相을 띠게 되었다. 특히 종래의 耆老會가 조선 初期부터는 太祖에 의해 設置된 耆社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점이 색다른 진전으로 생각된다.

즉 太祖는 在位 3年제인 1395년에 回甲을 맞아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耆社(耆老所)에 가입하였으며, 이때부터 耆社는 君臣이 함께 참여하는 至重한 것으로서 他司들이 감히 并列할 수 없는 最高의 기구가 되게 되었다. 太祖이후로는 肅宗이 在位 45年 제인 1719년에 六旬을 맞아 入社하였고 그후 英祖가 例外的으로 在位 20年제인 1744년에 51세로 司馬光의 故事를 따라 각각 耆社에 참여하였다. 이 세 임금의 寶牒은 靈壽閣에 봉안되었던 것이다. 太祖는 正卿의 地位(正二品以上)에 있던 滿70歲 이상의 文宰들에게 耆社의 入錄을 허락하고 이들에게 宴會를 배풀뿐만 아니라 田土와 그밖의 物資를 수여하여 敬老와 禮遇를 돈독히 하였던 것이다.<sup>12)</sup> 이후 耆社의 地位와 권위는 확고해지고 그 행사는 매우 성대해지게 되었다.

본래 正卿의 官職을 致仕한 70歲 이상의 士大夫老人들이 자기들의 風流와 親睦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였던 高麗時代의 耆老會가 朝鮮初期에 이르러 朝廷의 지원을 받는 敬老機構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蔭官과 武官은 참여할 수 없었다. 비록 대우와 행사는 융숭해졌지만 아무때나 스스로 모여 즐기는 자율성은 아무래도 위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고려시대 이래의 耆老會의 전통을 흡수하여 公的機構인 耆社로 制度化하고 임금도 참여하게 된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라 하겠다.

未幾 鄭仲夫作亂 同契者賴光陟·章弼 營救皆免……”이라는 기록 참조.

12) 耆老所 卽 耆社의 立司경위와 太祖, 肅宗, 英祖의 入社에 관해서는 『增補文獻備考』 卷215, 職官考二, 耆社條의 다음과 같은 기록들 참조. “臣謹按耆社之立司 古未有也 高麗時 致仕諸臣爲耆老會 而未聞以君上之尊亦與焉 惟我太祖大王 寶算靈長 始入耆社 衙門之設 自此始矣 繼而我肅宗大王 暨今上殿下 英祖大王 相承而入 三聖寶牒並安於靈壽閣於是乎 耆社事體至爲尊重 不敢并列於他司 作爲一篇謹係于首” “本朝太祖三年 聖壽躋六十 乃入耆社 留御諱於西樓壁上 命選文宰之年滿七十 位登正卿者 始入許錄 仍設宴 以御筆特賜田土 臧獲鹽盆 魚箭等物以贈之” “肅宗四十五年 王世子引太祖故事 請上入耆社……今幸聖壽靈長已臻六旬 而盛事終亦不舉 則豈不爲國家之欠典乎……乃以二月十二日 上入耆所 於是 建靈壽閣於耆所……主上尊號奉安於靈壽閣 尙衣院造几杖以進 上引耆老諸臣 入景賢堂 做五禮儀 養老宴 儀行宴 仍撤法樂使之 盡歡於本所” “英祖二十年 上以九月初九日 入耆社 拜靈壽閣 躬題御牒 尙衣院提調奉几杖……御題曰 予卽祚二十年 甲子九月初九日 年五十一歲 效司馬光故事 追踵 己亥入耆社之盛舉 詣靈壽閣……”

朝鮮初期의 耆老會에 관해서 우리는 成俔의 『慵齋叢話』를 통해서 그 전모를 약간 엿볼 수 있다.<sup>13)</sup>

조정에서는 3월 上巳와 9월 重陽마다 耆老宴을 普濟樓에서 베풀며, 耆英會를 訓練院에서 베풀고 모두 奏樂을 하사하였다. 기로연에는 前御堂上이 가서 차례하고, 기영연에는 70세가 된 2품이상의 宗宰와 正一品이상 및 經筵堂上이 가서 참례하였다. 禮曹判書는 모든 일을 고찰하여 연회를 관리하고 承旨도 또한 명을 받들어 간다편을 나누어 投壺하여 이기지 못한 자는 술잔을 가져다가 이긴 사람에게 주고, 음하고 서서 마신다. 樂章을 쫓고 술을 권하여 연회를 열고, 크게 絲竹을 쳐서 각각 차례로 술잔을 전하여 마시며, 반드시 취한 다음에야 끝낸다. 날이 저물어 서로 부축하여 나오니, 이 회에 참석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영광으로 여겼다.

이 기록을 통해서 耆老會와 耆英會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宴會의 장소가 각각 普濟樓와 訓練院으로 다르고 또한 파견되어 참여하는 관리도 다른 점이 그 차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耆老會와 耆英會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두 모임중에서 耆英會에 70세, 2품이상의 宗宰나 正一品 이상이 참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耆老會보다 耆英會가 더 格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두 모임이 모두 元老士大夫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조정에서도 차별히 신경을 써서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꾸민 잔치를 열어 마음껏 즐기게 했음은 마찬가지이다. 朝廷이 元老士大夫들을 위해 베푸는 일종의 敬老宴이지만 耆老會 본연의 風流的 性格이 여전히 짙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宴會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정기적으로 열렸음을 朝鮮王朝實錄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선초기에는 太祖가 制度化시킨 耆社이외에 아직 高麗時代 崔謙의 海東耆老會를 따라 스스로 조직된 순수한 耆老會 또는 耆英會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權近이 「後耆英會序」에서 전해주고 있는 權億(1319~1405)와 李居易(1348?~1412)등 10인의 耆英會가 그 좋은 예이다.

즉 이들은 唐의 白樂天, 宋의 文彥博, 高麗의 崔謙의 예에 따라 당시 勲德이 重望하여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10인으로 耆英會를 조직하여 70이상의 德爵俱尊者를 入會시키고 政丞 이상의 官職을 거친 者는 年齒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會中の 禮式은 모두 崔謙의 舊規備錄을 倣하였다. 이들은 淸德, 雅量, 風流를 높이고 서로를 존경하고 애끼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었으며 또 和氣를 從容하고 禮意를 두루 흠족하게 하며, 國家의 元氣를 培養한다는 등의 큰 뜻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모임은 「後耆英會序」의 끝에 있는 年紀로 보면 永樂 2年(1404) 3월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4)</sup> 「後耆英會序」의 會目に 적힌 이때의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13) 成俔, 『慵齋叢話』 卷9. “朝廷每於三月上巳 九月重陽 設耆老宴於普濟樓 又設耆英會於訓練院 皆齋酒樂 耆老宴則前御堂上往赴 耆英會則宗宰年七十 二品以上 及正一品以上 及經筵當上往赴 禮曹判書以諸事考察押宴 承旨亦承命而往 分耦投壺 不勝者取鰾 與勝者揖而立飲 奏樂章以侑之 遂開宴 大張絲竹 各以次而飲觴 心醉乃已 日暮扶携而出 得與是會者 人皆榮之” 本文의 國文翻譯은 『국역대동야승』(민족문화추진회, 1971), 1권, 225에서 引用.

14) 權近, 『陽村集』 卷19, 「後耆英會序」(12a~13b). “……遊一時之有勲德重望爲衆所尊者十人 爲會約 自今七十已上德爵俱尊者 方許入會 曾經政丞以上者 不拘年齒 期至永世守而勿失 會中禮式 皆倣雙明舊規備錄 如左屬予爲誌 予惟西原公太尉之嗣甥也 淸德雅量風流高致 有光先烈 且能招集耆英紹復此會 其交相敬 愛雍雍油油以同其樂 和氣從容 禮意周洽 培養國家之元氣 於此可觀 自今此會之相傳 當與我國祚 同垂於罔極也 夫永樂二年三月日……(會目省略)……會約序齒不序官 爲具務簡潔 食不過五味 菜菓脯醢之類不過五器 酒巡無等深淺自斟 主人不勸 客亦不辭 微醖爲度召客 共用一簡 客注可否於字下 不別作簡 或回事分簡者 聽會日早赴不待從 每月以次辨會 當辨者有故 次者先辨 掌約者六月一遞 違約者每事罰一巨觥.”

- ① 檢校議政府左政丞 權僖(86才)
- ② 領議政府事致仕 權仲和(83才)
- ③ 領議政府事致仕 李舒(73才)
- ④ 議政府右政丞 成石璘(67才)
- ⑤ 驪興府院君 閔霽(66才)
- ⑥ 上洛府院君 金士衡(64才)
- ⑦ 領議政府事 趙浚(59才)
- ⑧ 議政府左政丞 河崙(58才)
- ⑨ 領司平府事 李居易((57才)
- ⑩ 領承樞府事 李茂(50才)

이 耆英會는 또한 다음과 같은 규약을 정해놓고 있었다.<sup>15)</sup>

○ 會員들의 序列은 연령에 따라 정하고 官階에 따르지 않는다.

○ 모든 업무는 간결하게 하며 음식은 五味를 넘지 않게 하고 菜菓脯醢之類는 五器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술은 주량에 관계 없이 돌려가며 스스로 따루어 마신다.

○ 主人은 음식이나 술을 권하지 않고 손님은 역시 사양하지 않는다.

○ 적은 양의 술로 손님을 부를 때에는 한장의 簡札을 共用하되 客은 「可」字나 「否」字의 밑에 동그라미를 쳐서 참석여부를 알리고 별도로 편지를 써서 회답하지 않는다.

○ 매월 순서대로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하되 當辦者가 有故時엔 다음 順番者가 먼저 주관한다.

○ 掌約者는 6個月에 한번 바꾼다.

○ 違約者는 每事에 큰 벌소잔으로 벌주를 마시게 한다.

이러한 규약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耆英會도 會員들 각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간소하게 운영하며 風流와 親睦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의 다른 耆老會들과 마찬가지로 年長者 순으로 序列을 정하고 있어, 官階에 따라 序列을 정하는 一般 文人契會와 차이를 드러낸다. 아 물론 이 耆英會는 太祖의 耆社와는 다른 별도의 보다 자유롭고, 崔謙의 耆老會의 傳統을 보다 충실히 따른 모임임을 알 수 있다.

朝鮮初期에 조직된 耆英會로서 기록에 보이는 것은, 成宗때에 韓明澮의 주도하에 鄭昌孫, 李念義, 權至, 權綸 등 70才以上者와 徐居正, 李克培, 尹壕 등 70才未滿의 德望있는 者로 이루어졌던 모임 들 수 있다.<sup>16)</sup>

15) 註14의 「會約」參照.

16) 「成宗實錄」卷199, 18年丁未正月 庚申條(『朝鮮王朝實錄』11卷 pp. 176~177)에 “上黨府院君韓明澮 以徐居正所製耆英會序 來啓曰 歷代皆有耆英會 如唐之白樂天 宋之文彥博 高麗趙通等 俱以宿德高年 作者英會… 而只以國有會飲之禁 不可不聞 敢來啓耳……今臣欲倣前迹 與老臣鄭昌孫·李念義·權至·權綸等會歡 而如徐居正·李克培·尹壕 雖未逾七十 可以德望與會……傳曰 春秋耆英之會 國有常禮 今之所以爲會者 但以飲



앞에 살펴본 權僖나 韓明澮 등의 耆英會가 每年 3月 3日과 9月 9日에 朝廷의 후원을 받으며 訓練院에서 개최되던 耆英會와 여러가지 면에서 일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耆社에 속하는 耆老會와는 별도의 이러한 耆英會가 일년에 두차례 訓練院에서 개최되는 간치에 초청되었던 것은 아닐까 막연하게 추측이 될 뿐이다.

조선시대에는 成俔의 『慵齋叢話』에 보이는 것처럼 耆老會와 耆英會가 併存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모임들을 그린 작품은 별로 전해지는 것이 없다. 더욱이 조선초기와 중기의 것은 뚜렷한 예가 드물고, 팔목할만한 것은 거의가 다 조선후기의 것들이다.

조선시대에도 노인들만을 위한 耆老會가 耆英會와 더불어 一般 文人들의 契會가 초기부터 성행하였음은 文人들의 文集이나 遺作들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一般 文人契會들에 관해서는 수 많은 詩文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耆老會에 관한 것처럼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그 기본적인 성격이 耆老會와 마찬가지로 風流와 親睦에 있었음은 쉽게 짐작이 된다. 이러한 성격은 「蓮榜同年 一時曹司契會圖」에 쓰여져 있는 金麟厚의 다음과 같은 詩에서도 잘 드러난다.<sup>17)</sup>

進士에 同榜한 당년의 선비들이, 십년을 전후하여 大科에 올랐구려,  
벼슬길 함께 가니 새로 맺은 벗 아니오, 말은 구실 다르지만 무두 다 말단일래,  
만나는 자리마다 참된 면목 못 얻어서, 한가한 틈을 타서 좋은 강산 찾아가네,  
진세의 속박을 잠시나마 벗어나니 술마시며 웃음 웃고 이야기나 실컷 하세.

金麟厚와 그의 小科同年들이 1542년경에 모였던 契會를 노래한 이 한편의 시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浩然之氣와 친목에 뜻을 둔 文人契會의 성격을 잘 읽어볼 수 있다. 이점은 契會를 노래한 그밖의 文人들의 시와 산이나 강에서 열린 계획을 묘사한 그림들에서도 종종 드러나고 있다.

#### 나. 朝鮮王朝時代 契會圖의 變遷

조선왕조시대의 耆老會와 一般 文人契會는 그림으로 그려 보존하는게 초기부터 상례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契會를 노래한 시문 중에 「畫工을 시켜 그리게 했다」는 귀절이 종종 보이는 점이나 지금 전해지는 契會圖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契會圖들은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記念과 記錄의 목적으로 畫員에 의해 參加者 수만큼 그려졌는데 그 形式이나 樣式的 측면에서 韓國的인 경향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또 年代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繪畫史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契會圖들은 모두 16世紀 이후의 것이며 그 이전의 것은 알려져 있는 것이 없다. 그 중에서 연대가 올라가는 것들로 1531년경에 제작된 「讀書堂契會圖」, 1540년경의 「薇垣契會圖」, 1542년경의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1550년경의 「戶曹郎官契會圖」, 「蓮亭契會圖」 등이 있

食乎 抑亦有所事乎 明會啓曰 踈其會期 略其宴品 務從簡易 但賞餘齒耳 傳曰 自古名臣 皆有此會 今日元勳 如此會歡 不亦可乎"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으로 보면 成宗 18年(1487) 당시에 국가적으로 會飲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간소하게 치루어졌으리라 믿어진다.

17) 翻譯 및 原文은 劉復烈, 『韓國繪畫大觀』(大教院, 1979), p.90 참조. 그리고 이 契會圖에 관해서는 安輝濬 「蓮榜同年 一時曹司契會圖」小考, 『歷史學報』第65輯(1975, 3), pp.117~123 參照.

다.<sup>18)</sup> 이 중에서 앞의 세 그림들은 모두 조선초기의 “契軸”으로서 한결같이 安堅派의 畫風을 보여 주고 있다. 맨 위의 上段에 契會의 標題를 적어 넣고 中段의 넓은 화면에는 山水를 배경으로 契會의 場面을 묘사하였으며, 下段에는 參席者들의 人的事項을 官階의 序列에 따라 적은 座目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것은 中國이나 日本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契軸形式인 것이다. 또한 山水를 위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정작 역점을 두어 표현해야 할 衣冠을 정제한 契員들의 모습이나 契會場面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게 상징적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文人들이 俗世의 속박을 떨치고 찾아가는 大自然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지극히 작게 그려진 契會의 場面에서나마 항상 衣冠을 정제한 契員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엄격하던 당시의 儒敎의 規範을 엿보게 된다. 그러나 한편 契員들의 주변에는 늘 큰 동이에 담겨진 술이 준비되어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서 契會에 넘쳐 흐르는 혼쾌한 풍류와 화기에애한 친목의 情景를 느끼게 한다.

이처럼 山水를 위주로 표현하던 契會圖의 경향은 약 1550년경부터 「戶曹郎官契會圖」나 「蓮亭契會圖」등에서 전형적으로 보듯이 契會의 장면이 배경의 山水와 대등하게 비중을 두어 표현되게 되었다 즉 屋內에 자리하고 있는 契員들은 더 이상 상징적으로만 작게 표현되지 않고 훨씬 크고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契會의 장면이 이제는 自然의 景觀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16世紀中葉頃에 일어난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契會圖들은 그 이전의 것들과는 달리 이 「戶曹郎官契會圖」나 「蓮亭契會圖」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1550년경 이후의 조선중기에 계획도들은 대부분 屋內에서 열리고 있는 契會의 場面과 참석자들의 모습을 부각시켜 표현하고 배경에는 山水를 그리지 않거나 그리더라도 조선초기에 비하면 훨씬 소극적인 방법으로 묘사하는게 두드러진 경향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李起龍이 1629년에 그린 「南池契會圖」를 위시한 조선중기의 계획도들에 잘 나타나 있다.<sup>19)</sup>

조선후기에 이르면 契軸보다는 契帖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리고 조선중기 계획도의 경향이 더욱 굳게 자리를 잡아 1720년에 완성된 肅宗의 「耆社契帖」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契會의 장면과 人物中心으로 그려져 있다.<sup>20)</sup> 이 「耆社契帖」에는 「御帖奉安圖」, 「崇政殿進賀箋圖」, 「景賢堂錫宴圖」, 「奉盃歸社圖」, 「耆社私宴圖」등이 그려져 있는데 한결같이 山水가 결여되어 있고 契會의 장면과 人物들만이 증점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조선후기 계획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金弘道가 1804년에 開城의 滿月臺를 배경으로 그린 「耆老世聯耆會圖」의 경우처럼 화풍은 조선후기의 것이나 形式은 조선초기와 중기 이래의 契軸의 傳統을 따른 例도 아직 한편으론 남아 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sup>21)</sup>

18) 「讀書堂契會圖」와 「戶曹郎官契會圖」 및 「蓮亭契會圖」에 관하여는 安輝濬, “16世紀 朝鮮王朝의 繪畫와 短線點皴” 『震檀學報』 第46·47號(1979. 6), pp. 223~227 및 “16世紀中葉의 契會圖를 통해 본 朝鮮王朝時代 繪畫樣式의 變遷”, 『美術資料』 第18號(1975. 12), pp. 36~42 각각 參照. 또한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에 관해서는 註17 參照. 그리고 「徽垣契會圖」는 安輝濬監修, 『山水畫(上)』(中央日報, 1980), 圖版 41 參照.

19) 安輝濬監修. 『山水畫(上)』(中央日報, 1980), 參考圖版 42 參照.

20) 『耆社契帖』(梨花女大博物館, 1976) pp. 15~45 參照.

21) 李東洲, 『우리나라의 옛그림』(博英社, 1975), 圖版 46 및 崔淳雨, 『繪畫』, 『韓國美術全集』 第12卷(同和出版公社, 1972), 圖版 79 參照.

조선왕조시대 契會圖에 보이는 時代的 변화는 당시 宮闕의 각종 행사를 그린 儀軌圖등의 記錄畫들에서도 엿보이고 있다. 契會圖나 그밖의 각종 기록적인 목적을 지닌 그림들은 늘 畫員들에 의해 그려졌음을 감안하면 공통적인 시대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 4. 結 語

한국의 文人契會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늦어도 이미 高麗時代에 유행하기 시작하여 朝鮮王朝時代에 이르러서는 더 없이 盛行하였다. 이 兩代의 文人契會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그 하나는 만 70세 이상의 元老士大夫들로 구성이 되던 耆老會이고 다른 하나는 科擧의 同年이나 官衙의 同僚들로 이루어지던 一般文人契會이다. 前者의 경우는 만 70세 이상의 年齒를 入會條件으로 하면서도 正卿의 地位(正二品 以上)에 오르고 德望이 높은 사람이면 예외로 가입시킬 수 있었고 序列은 官職보다는 나이에 따라 정해졌었다. 반면에 後者는 年齡制限은 前者의 경우처럼 엄하지 않았고 보다 자유롭게 구성되곤 했으나 序列은 항상 官階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耆老會든 一般文人契會든 그 근본 취지가 親睦에 있었던 점은 공통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文人契會는 兩代를 거치면서 韓國의인 特性이나 發展相을 보이게 되었다. 본래 唐代 白樂天의 洛中九老會나 宋代 文彥博의 眞率會 등을 모방하여 崔謙에 의해 조직되기 시작했던 고려의 耆老會가 후기에 이르러 순수한 친목단체로서의 목적 이외에 事佛하는 단체로 성격이 바뀌기도 했고 朝鮮初期에 이르러서는 太祖에 의해 公式 衙門인 耆社(耆老所)로 制度化되었던 점 등은 그 좋은 예이다.

高麗時代의 海東耆老會를 필두로 하여 그 후의 文人契會들은 종종 圖繪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의 契會圖는 遺存하는 작품이 없어 그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는 없으나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詩文과 標誌를 동반한 人物中心의 描寫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契會圖는 朝鮮初期에 들어서면서 山水 속에 契會를 상징적으로 작게 묘사하고 標題와 座目을 곁들인 韓國的인 契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朝鮮中期로 넘어가면서는 契會場面을 보다 중요하게 묘사하는 경향을 띠다가 朝鮮後期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契會의 광경과 초상화를 중점적으로 그리는 契帖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文人契會圖들은 우리의 傳統文化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내 보여 준다고 하겠다.